

의료관광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1: 이론적 고찰

- 박준규(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 왜 의료관광인가?
3. 의료관광의 사례 : 코스타리카 성형의료관광
4. 의료소비주의와 보건의료 공공성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 홍보자료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최근 한국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료관광을 의료산업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로로 선정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관광상품과 서비스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의료관광의 인기 배경에는 세계화시대의 주요 특징인 인간과 재화의 이주와 이동이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역장벽을 허물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과 범위의 재화를 교환하고 있다.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점 많은 수의 개개인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이주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을 위해, 은퇴후 삶을 위해, 사업을 위해,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한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은 흔히 의료관광이라고 부른다.

- 의료관광을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국경넘나들기로 이해한다면 이 현상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인간은 건강과 치료를 위해 국경을 넘는 여행을 했다. 19 세기 유럽에서는 중산층들이 건강증진과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온천수를 찾아 유럽 전역의 온천장으로 여행을 했다. 20 세기에는 후진국의 부유층들이 국내 보다 더 나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진국으로 여행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정부가 말하는 의료관광은 과거의 의료여행들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다. 중요한 차이가 첫 째 의료여행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둘 째, 여행의 방향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 이동은 과거 보다 더욱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셋 째, 오늘날에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시장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아래에서 논의되는 관광산업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결합된 의료산업의 새로운 인프라가 존재한다.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부의 참여 및 역할이다.

- 과거 의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민족-국가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제공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는 민족-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초국가주의적 또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 또한 국제화와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본 발표는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시대에서 의료관광의 의미와 관련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의료관광의 영향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왜 의료관광인가?

- 의료관광의 협의적 정의는 자의에 의해 이동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는 환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이동과 환자라는 매우 모호한 두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이동의 여러 요소에 따라 누구는 의료관광 통계에 포함이 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간 거주하는 주한외국인들이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느슨한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경넘나들기는 일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의료관광의 범위가 달라진다.

- 보완 또는 대안 의료케어를 추구하는 의료여행자와 선진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은 구분되어야 한다. 혹자는 몸과 마음의 웰빙을 위한 여행은 의료관광과 구별하여 헬스관광으로 정의한다. 의료관광이 환자와 서비스제공자 측에 의해 어떻게 구성 되는지는 각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 이에 많은 학자들은 언론과 정부 정책 제안서에 제시되는 의료관광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 OECD 고용, 노동사회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관광객의 수치는 주로 딜로이트 컨설턴트회사가 2007년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의 수를 기반으로 예측한 숫자인 750,000에서 시작하여 2010년도에는 3-5 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에서 나온 수다. 혹자는 의료관광객 중 미국인이 10%정도 차지한다고 하며 전세계 의료관광객을 3-5 천만명으로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600 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모든 수치가 딜로이트 컨설턴트 회사가 제시한 수치에서 시작한 것이다.

- 몇몇 학자들은 의료관광보다는 의료여행이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건강 또는 의료를 위한 이동 또는 여행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했기 때문이고 관광이란 용어가 의료케어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여행에는 의료난민, 의료순례자, 외주환자 등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여행자들이 존재한다.

- 비록 관광 행위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료관광이란 개념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의료소비주의와 관광연구의 이론들을 접목시켜 오늘날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료관광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분석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관광이란 개념은 산업의 적극적 개입, 광고, 공급자가 부추기는 수요, 등과 연결된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소비주의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관광연구에서는 관광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제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체제는 송출국과 유입국, 공항, 항공기, 호텔, 버스 등등 이 두 지역을 커버하는 관광산업과 시설, 방문객과 현지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등등이 포함된다.

- 이런 맥락에서 관광객의 나이, 성별, 경제적 지위, 사회적 배경, 인종 등등은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만든다. 또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는 것 또한 유의미 하다.

- 관광인류학에서는 관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시적 접근으로 관광객의 관점에서 관광을 일상에서 벗어나 비밀상 속에서 진정한 일상을 찾는 성스러운 의례 또는 여행으로 이해한다. 또 다른 관점은 거시적 관점으로서 관광을 제국주의의 지배의 또다른 형태로 이해한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였으며 독립 이후에는 전 식민주의 본국의 투자와 관광객들에 의해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이같은 불평등한 역사와 관계는 후기식민주의 시대에서도 식민주의적인 관계를 재생산한다.

- 이런 맥락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계화로 인한 서구이념과 문물의 패권이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개개인들의 의료행위 및 의료에 대한 이해 변화 (미시적 관점)과 인증기관들을 통한 미국 의료기준의 세계화 (거시적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 관광인류학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인 '손님과 현지인'이란 개념은 관광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타자, 선진국과 후진국, 부유층과 빈곤층, 등등의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포착하게 해주고 이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체성, 경제불평등, 젠더 등등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관광연구는 전반적으로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현지인과 현지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나뉜다. 그러나 모두가 이 두 영역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 관광산업 처럼 의료관광산업 또한 비슷한 특성으로 반(semi)체계적 산업화 되었다. 즉 소규모 산업과 초국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의료관광의 사례 : 코스타리카 성형의료관광

- 이 부분은 Sara L. Ackerman 의 글 Plastic Paradise: Transforming Bodies and Selves in Costa Rica's Cosmetic Surgery Tourism Industry 를 정리 요약한 내용이다. 이 글은 의료원과 의료관광 호텔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민족지학적 분석을 통해 케어산업이 어떻게 의료관광객과 현지 서비스 제공자의

체화된 주체성을 위해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케어의 사회성과 치유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은 환자가 수술 후 리미널리티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며 상상된 의료 아케디아로의 향수적 여행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진은 자립과 변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기대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것을 보여준다.

-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상품은 성형수술이다. 여기에는 치아표백에서부터 몸 성형까지 포함된다. 성형수술의 성장은 인간의 삶의 의료화와 증진과 치료 사이와 뷰티와 건강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완성 또는 균형상태 보다 자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시 되는 지배적인 사회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 2008 년 코스타리카에는 5 천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다.

- 성형수술을 위해 코스타리카를 찾은 북미 관광객들의 첫 물결은 코스타리카가 관광의 낙원으로 알려지기 전인 1970 년대부터 시작했다. 초기 의료여행자들은 여성승무원이었다. 이들은 당시 코스타리카 상유층 여성 사이에 인기가 높은 코스타리카 수도인 산호세에 위치한 영리 성형외과를 애용했다.

- 80-90 년대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되는 수술 후 회복, 대기, 고립 기간 동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부띠크 산업이 형성되었다. 일부 성형외과는 숙박시설을 두고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하여 요리, 운전, 간병, 케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80 년대 경제위기와 외국인투자와 민영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90 년대 말부터 민간의료부문이 확산된다. 성형의료관광의 성장은 선진국 외국인 여성들이 본국의 의사들이 진행하는 수술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근대성을 상징하는 것과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질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 코스타리카의 의료 상품화와 초국가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00 년 산호세 시가지에 설립된 영리 병원이다. CIMA (International Center for Advanced Medicine) 텍사스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사람들로 분비고 내뿜한 산호세의 국립병원들과 대조된다. CIMA 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인들도 매력을 느낀다. 2006 년에는 나라 전체 성형외과 의사 40 명 중 1/4 이 CIMA 에서 거의 성형 수술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성형의료관광 시설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에 나오는 홍보용 이미지들은 열대 판타지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연상시킨다. Paradise Cosmetic Inn, Las Cumbres (The Heights), Casa de la Mariposa (House of the Butterfly), and Villa Plenitud (Villa of Abundance). 성형의료관광 시설들의 가장 인기 있는 특징은 리조트 같은 넓은 공간이다.

- 성형의료관광 시설을 찾는 여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몸과 삶이 상처를 받았기에 복원 또는 재충전의 수단으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상을 자극하는 것은 소위 치유경관이다. 한 성형의료관광 시설은 부유층의 거대 저택을 연상케 하듯 담벼락과 정문이 있는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과 건물은 열대 낙원을 연상케 한다.

- 복미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코스타리카 자연경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관광은 80 년대 코스타리카를 관광낙원으로 묘사한 생태관광의 이미지와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아름답고 세속세상과 거리가 먼 야생적 자연의 미학을 동원하여 코스타리카의 의료전문성, 기술의 안정성, 그리고 위생성을 홍보한다. 심지어 코스타리카의 근대 의료는 스페인 탐험가들이 찾았던 젊음의 분수와 마찬가지로 말한다. 이런 강력한 식민주의적 유토피아적 기술적 상상력은 코스타리카를 이국적으로 만드는 한편 제 3 세계 의료의 열약성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병원 기반 서비스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며 거의 남성 의료인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한편 수술 후 회복 케어서비스는 간호사, 간병 노동자, 안마사 등 국지적이며 여성적 이미지가 지배한다.

- '천직',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선물', '금전보다 케어 우선' 등등 회복 요양 시설 내에서 전해지는 준종교적 담론은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 사이에 친족과 같은 강한 연대감을 갖게 한다. 대부분이 혼자 여행을 하는 환자들은 수술 후 회복하는 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케어노동자들과 함께 임시적인 양가족을 구성한다.

4. 의료소비주의와 보건의료 공공성

-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집단은 자의에 의한 여행과 전액 자기 부담이란 특성을 강조한다. 전자는 소비주의에서 화자되고 있는 비용절감을 위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보건의료의 영리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흔히 의료관광은 소비자에게 비용절감을 가져다 주고 제공자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윈-윈 거래라고 한다. 의료관광객과 의료관광시장 등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은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Table 1: Medical tourism prices (in selected countries)

Procedure	US	India	Thailand	Singapore	Malaysia	Mexico	Cuba	Poland	Hungary	UK
Heart bypass (CABG)	113 000	10 000	13 000	20 000	9 000	3 250		7 140		13 921
Heart Valve replacement	150 000	9 500	11 000	13 000	9 000	18 000		9 520		
Angioplasty	47 000	11 000	10 000	13 000	11 000	15 000		7 300		8 000
Hip replacement	47 000	9 000	12 000	11 000	10 000	17 300		6 120	7 500	12 000
Knee replacement	48 000	8 500	10 000	13 000	8 000	14 650		6 375		10 162
Gastric bypass	35 000	11 000	15 000	20 000	13 000	8 000		11 069		
Hip resurfacing	47 000	8 250	10 000	12 000	12 500	12 500		7 905		
Spinal fusion	43 000	5 500	7 000	9 000		15 000				
Mastectomy	17 000	7 500	9 000	12 400		7 500				
Rhinoplasty	4 500	2 000	2 500	4 375	2 083	3 200	1 535	1 700	2 858	3 500
Tummy Tuck	6 400	2 900	3 500	6 250	3 903	3 000	1 831	3 500	3 136	4 810
Breast reduction	5 200	2 500	3 750	8 000	3 343	3 000	1 668	3 146	3 490	5 075
Breast implants	6 000	2 200	2 600	8 000	3 308	2 500	1 248	5 243	3 871	4 350
Crown	385	180	243	400	250	300		246	322	330
Tooth whitening	289	100	100		400	350		174	350	500
Dental implants	1 188	1 100	1 429	1 500	2 636	950		953	650	1 600

* Costs of surgeries around the world. Costs given in US\$

** The price comparisons for surgery take into account hospital and doctor charges, but do not include the costs of flights and hotel bills for the expected length of stay.

Source: Authors, March 2011, compiled from medical tourism providers and brokers online.

• 특히 미국의 경우, 의료관광은 정보에 기반한 소비주의를 증진하고 단순히 의사의 지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의료케어 소비담론과 함께 논의 되고 있다. 즉 의료소비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이 부분은 Arthur W. Frank 의 글 What's wrong with medical consumerism?를 정리 요약한 내용이다.

• 의료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 째는 의료소비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의료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료소비주의는 사회 자체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 전통적으로 몸의 소비주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조작된 이미지와 상품을 연관시키고 상품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몸과 이상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메시지에 의해 조작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몸 상품화는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상품화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부분을 개선하는 행위에 현금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몸 상품화 형태가 몸의 파편화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몸의 파편화는 몸을 일련의 특징들로 구성된 상품처럼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제 몸은 부동산, 자동차, 스테레오 등과 같은 상품처럼 마치 다른 경쟁상품보다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징들로 구성된 것 처럼 이해된다.

• 20 세기의 진정한 사회적 진보 중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불능력과는 무관하게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국민의료보험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 의료소비주의의 확산에 의해 의료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다른 재화들 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부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해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 신자유주의는 의료서비스를 마치 누가 살지 아니면 죽을 지를 판정할 수 있는 MRI 와 같은 의료검사를 선택의 하나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일반화 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주의는 현대판 행운의 신정론이다. 이 현대판 행운의 신정론은 개인이야 말로 건강을 만들어 나아가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 또는 노력 부족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이런 맥락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의료환자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집중화 등등의 현상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잠식을 초래한다.

5. 나오는 말

- 앞서 말했지만 아직까지 의료관광의 실체를 파악 할 수 있는 경험적 그리고 질적 연구는 거의 부재한다. 그러나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날로 수월해지고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현상과 담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적어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관광의 허와 실을 파악하고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이동하는 또는 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관광이란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소비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의료관광에 대한 신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여행이란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여행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